

기도의 제단으로 돌아갈 때 - 이른 아침 당신을 찾아서

● 5일 - 이른 아침의 예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개역)

제단에 관한 진실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제단에 관한 진실”이 그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성경에 나온 제단들과 그것들을 쌓은 사람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제단은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한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은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물리적인 제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일관되고 진지하며 성경에 근거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며 산다면, 이미 엘리야가 갈멜산에 보수한 것과 같은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1 Kings 18).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그러한 “제단”을 봅니다. 매일의 사역과 끊임없는 위협, 사탄의 압도적인 공격이 펼쳐지는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긴 시간을 기도와 예배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빌 2:6)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시 46:10) “잠잠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부터 그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하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만이 이 세상의 죄를 십자가로 옮기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침 제단을 쌓는 이들의 바람

마가복음 1:35절(새번역)에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한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전날 하루 종일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내며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그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찾았을 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 (막 1:37). 예수님의 대답은 아침저녁 제단을 쌓는 모두가 고대하는 축복을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막 1:38). 무슨 말씀일까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은 큰 딜레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인 이곳에 머물면서 열매 맺는 사역을 계속할지 아니면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사역의 영역을 위해 그곳을 떠날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지의 사역을 위해 결실을 낳는 사역을 포기할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올바른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 동안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날을 위한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이른 시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그분의 보증을 놓치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도록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30-45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 요한복음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늘 아버지, 매일의 활동에서, 우리 삶의 중요한 국면이나 일상적인 국면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구분하지 않고, 예배를 안식일의 행사로만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길로 보게 하소서. 당신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원할 때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일하고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행할 때든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은 항상 연중무휴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아니 우리의 삶이 모든 진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참된 예배의 경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당신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무시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거나 매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강요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 당신을 부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밖의 기도 제안들

감사와 찬양: 구체적인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고백: 몇 분동안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인도: 현재의 도전과 결정을 위해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교회: 지역교회와 세계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각 구별된 기도요청을 참고).

지역교회의 요청: 교회 성도들, 가족,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경청과 반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찬양으로 화답하라.

찬양 제안

찬미가: 사랑의 목자 예수(310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644장); 내가 나이 어릴 때에(672장); 눈을 예수께 돌려(61장)

다른 찬양: 기름을 채우세 내 등잔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456장);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